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평가 -팬츠차림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Wearers' Impression to Combination of their Body Type with Neutral Tone Wear - focused on Pants-

팽숙경* · 강경자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Suk-Kyung Paeng* · Kyung-Ja Kang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ts effect on wearers' impression formed by combination of their body type with neutral tone clothing.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responses to stimulus in scales(7-point semantic). 45 pictures used as stimulus are, through computer simulation, manipulated to five wearers' body type and nine neutral tone wear. The subjects are 276(?)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Kyung-nam area. Factors on wearers' impression suggested as responses to the stimulus consist of 5 different demensions (Tenderness, Cuteness, Attractiveness, Elegance, Intrepid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ombination of their body type with neutral tone wear significantly affects the formation of wearers' impression in the factor of Tenderness, Attractiveness, and Intrepidity (?); to the factor of Attractiveness, wearers' body type is rather more related than wearers' neutral tone wear is. Second, the harmony of their body type with neutral tone wea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earers' impression in the factor of Cuteness. According to those results, the combination of wearers' body type with neutral tone wear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formation of wearers' impression.

Key Words : wearers' body type, neutral tone wear, formation of wearers' mpression

I. 서론

우리는 타인과 짧은 순간만 접촉하여도 그 사람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첫 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일 뿐 아니라 추후 상호작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복은 이러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로 작용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윤경, 강경자, 2003; 류숙희 외, 2000;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을 보면 여러 의복단서들 중 특히 의복색이 첫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색들의 조합인 배색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색채가 갖는 높은 가시적 표현력이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먼

저 시선을 끄는 감각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복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인체에 착용되어 인상형성에 관여하게 되므로 동일한 의복단서도 의복이 착용되는 인체 즉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인상은 달라 질수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인상형성 시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rger, 1981).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재숙, 김희숙, 1992; 김재숙, 송경자, 200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미숙, 김재숙, 1995)은 대부분 남성이나 아동의 체형을 의복 및 기타 단서들과 관련지어 다루고 있고 여성의 체형을 단서로 한 연구(김재숙, 김희숙, 1992)도 있으나 체형을 단순히 황비율에 의해 표준체형과 비만체형만으로 분류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선그림 자극물을 사용하고 있어 여성의 체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 Corresponding author: Suk-Kyung Paeng
Tel: 011-850-9347, Fax: 055) 753-9030
E-mail: paeng4you@hanmail.net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착용자의 체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와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체형을 키와 중량감을 기준으로 하여 5수준으로 분류하고, 의복단서로는 특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의복색의 톤조합을 변수로 하여 체형과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원하는 인상창출을 위한 체형과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와 의류산업체의 차별화된 상품기획시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자는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에서 가디건·스커트차림을 대상으로 여성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여성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디건·스커트차림과 함께 여성들의 착용빈도가 높은 의복유형인 가디건·팬츠차림을 대상으로 전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과 인상차원

인상형성은 타인에게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인상형성연구에 대한 핵심은 타인에 대해 제시 되는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형태주의 접근이론의 대표학자인 Asch(1946)는 타인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전체적 형태 안에 유의미한 형태(Gealt)로 통합되어 인상이 형성되고 여기서 타인에 대한 정보들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고 하였다. 즉, 타인이 지닌 특질 중에는 두드러진 중심 특질이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타인의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며 나머지 주변특질들은 이 인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상은 하나의 차원으로 형성되지 않고 여러 개의 범주화된 차원으로 형성되며 이에 관한 연구는 의미분방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분법을 최초로 사용한 Osgood(1957)은 대인지각시 형성되는 인상차원을 평가, 역능, 활동인자로 분류하

고 이 중 평가차원이 가장 설명력있는 중요차원이라고 하였다. 박혜선(1984)은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으로 평가, 활동, 역능, 유행차원을 도출해 냈으며 이 중 평가차원이 가장 설명력이 크다고 하여 Osgood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Damhorst(1990)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109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복에 대한 인상 차원은 평가차원, 역능차원, 활동성차원, 사고적 차원으로 범주화되며 이중 역능성 차원이 가장 중요차원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은 3-6개로 범주화되며 그 속에는 평가, 활동, 능력, 품위, 독특성, 현시성, 온유성, 귀엽성, 매력성 등의 요인들이 포함되며 대체로 가장 기본적이며 설명력이 큰 차원은 평가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강경자, 2003;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홍병숙, 1993)

이상에서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차원들은 사용된 의복단서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단서들을 변수로 한다면 또 다소 다른 차원으로 인상이 형성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착용자의 체형과 인상형성

우리가 타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의복 단서와 함께 첫 번째로 사용하는 단서는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이다.

Pedersen (1994)은 남성의 경우 체형, 눈, 얼굴형, 키, 헤어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체형, 헤어, 얼굴형, 다리, 키 순으로 신체적 매력성 평가 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신체 특성 중 체형이 가장 중요한 매력단서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Douty(1984)는 대체로 지각자들은 마른체형의 착용자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김재숙, 김희숙(1992)도 정상체형의 착용자가 비만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호의적인 외모로 평가되고, 비만체형 착용자는 정상체형 착용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미숙, 김재숙(1995)과 김재숙, 송경자(2002)는 아동의 체형에 따라 정상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더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비만체형은 정상체형보다 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송선옥, 이인자(2001)는 남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에 대한 연구에서 멋스러움, 친근성, 활동성, 강인성의 4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체형은 멋스러움과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팽숙경, 강경자(2004)는 의복유형 중 스커트 차림을 대상으로 여성의 체형과 의복의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의 5요인이 도출되었고, 체형은 각 인상차원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매력성 인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착용자의 체형은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체형과 이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복단서를 변수로 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다각적으로 체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의복색과 인상형성

의복에서 색채는 가시적 표현력이 큰 요소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강혜원, 2000).

무채색은 흰색에서부터 검정까지의 회색단계로 밝고 어두운 정도 즉 명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느낌을 주고, 회색 톤은 대체로 무겁고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명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밝은 회색 톤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두운 회색 톤은 딱딱한 이미지를 준다. 검정은 모든 색이 혼합된 색으로 과거와는 달리 젊은 신세대들에게 첨단 이미지, 패션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인(2000)과 김미영(2002)의 의복 선호색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흰색에서부터 검정에 이르는 무채색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유형과 무채색 의복의 명도가 의복 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Francois와 Evans(1987)는 대인지각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은 의복색은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에, 의복형태는 활동성과 편안성 차원에 더 영향을 미치며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고 이정옥 등(1995)도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평가성이 높다고 하였다. 류숙희

등(2000)은 4종류의 무채색으로 된 5 종류의 의복형태를 변인으로 하여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의 색채에 의해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 차이를 보여 회색과 검정색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더 매력적이고 품위있는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문주영, 강경자(2003)는 상·하의 색상과 하의 형태에 따른 캐주얼 웨어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결과 외모평가요인에서는 하의 형태가 스커트 일 경우는 흰색을, 팬츠 일 경우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대담성 요인에서는 상의가 흰색일 경우 팬츠가, 검정일 경우는 스커트 일 때 높게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의복색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작용하며 색들의 조합인 배색에 의해서도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착용빈도가 높은 팬츠차림을 대상으로 여성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변화될 경우 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밝힌다.
2.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① 자극물 선정

모델선정- 표준체형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여대생 32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후 전문가 집단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에 의해 가장 표준 체형에 가까운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키 162cm, 몸무게 52kg). 이 때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은 제 4차 한국표준체유예비조사(2003.5)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체형선정-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체형 분류의 기본 요

소인 키와 중량감(체중)을 변수로 하여 분류 선정하였다. 즉, 표준체형을 기본으로 먼저 키를 변수로 하여 2 종류(작은, 큰)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중량감에 따라 2 종류(마른, 뚱뚱한)로 분류하여 표준체형(stadard body; 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hort & thin; 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hort & fat; 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all & thin; 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all & fat; TF)의 5가지로 분류 선정하였다.

의복선정- 여성들의 착용빈도가 높은 세미정장인 가디건·팬츠차림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가디건은 체형을 인식할 수 있는 적당한 퍼트감이 있는 라운드 네크라인형을 착용하고, 팬츠는 발목을 덮는 길이의 기본 일자형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상선정-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김영인 외, 2000)을 참고로 가장 무난하게 선호되는 색상인 무채색을 선정하고 이를 한국표준색표집(1991)의 색상에 준하여 라이트(white; L), 미디움(grey; M), 다크(black; D)의 세 단계 톤으로 분류한 후 각기 조합하였다. 즉, 라이트/라이트(white/white; L/L), 미디움/라이트(grey/white; M/L), 다크/라이트(black/white; D/L), 라이트/미디움(white/grey; L/M), 미디움/미디움(grey/grey; M/M), 다크/미디움(black/grey; D/M), 라이트/다크(white/black; L/D), 미디움/다크(grey/black; M/D), 다크/다크(black/black; D/D)의 9가지 톤조합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무채색
라이트(Light)	N9
미디움(Medium)	N5.5
다크(Dark)	N2

<표 2> 자극물의 조작내용

체형 \ 톤조합	표준체형(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F)
라이트/라이트(L/L)	SBLL	STLL	SFLL	TTLL	TFLL
미디움/라이트(M/L)	SBML	STML	SFML	TTML	TFML
다크/라이트(D/L)	SBDL	STDL	SFDL	TTDL	TFDL
라이트/미디움(L/M)	SBLM	STLM	SFLM	TTLM	TFLM
미디움/미디움(M/M)	SBMM	STMM	SFMM	TTMM	TFMM
다크/미디움(D/M)	SBDM	STDM	SFDM	TTDM	TFDM
라이트/다크(L/D)	SBLD	STLD	SFLD	TTLD	TFBLD
미디움/다크(M/D)	SBMD	STMD	SFMD	TTMD	TFMD
다크/다크(D/D)	SBDD	STDD	SFDD	TTDD	TFDD

②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서는 표준체형의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5가지 체형으로 변형 조작하여 동일한 인물로 된 5가지 체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체형별 인물이 다를 경우 인상형성에 미치는 인물이 주는 영향력 즉 각기 다른 얼굴이 주는 영향력을 체형간에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먼저 선정된 의복을 착용한 모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사진 자극물을 CAD system(gerber)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5가지 체형으로 변형 조작 하였다. 다음으로 의복의 상하의에 각각 9가지 톤조합이 되도록 색상을 변환한 후 hp deskjet 9600을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5), 톤조합(9)을 각기 다르게 조합하여 총 45개의 자극물(15×21cm)이 제작되었다. 이 때 헤어스타일과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체형(5), 톤조합(9)을 독립변인으로 한 2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두 독립변인(5×9)에 의해 조합된 총 45개의 자극물을 23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1-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관찰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복 착용자와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 김재숙, 김희숙, 199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등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30

개의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0개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요인분석결과 26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을 기준으로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6월 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여성 착용자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인상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6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8$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밝히기 위해 변량분석과 보조분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

착용자의 체형, 무채색 톤조합에 변화를 준 45개의 자극물에 대한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6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미분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와 동일한 결과이다. 도출된 인상차원은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의 5개 요인으로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7, .86, .83, .71, .56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6.7%로 부드러운-딱딱한, 온화한-신경질적인, 배려깊은-독선적인, 따뜻한-차가운 등이 포함된 7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송선옥, 이인자(2001)의 친근성 요인, 이명희(2002)의 화친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에 대해 16.5%의 설명력을 나타내

며 산뜻한-칙칙한, 밝아보이는-어두워보이는,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등 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어 귀염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이주현(1990)과 이경희(1991)의 품위성 요인, 오은주(1998)의 성숙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12.2%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보기좋은-보기싫은, 날씬해 보이는-뚱뚱해 보이는, 매력있는-매력없는, 키가 커보이는-키가 작아보이는 등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날씬해 보이는, 키가 커보이는 등의 형용사쌍이 이 요인에 포함된 것은 큰 키와 날씬한 체형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매력성에 대한 시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력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오은주(1998)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는 품위있는-품위없는, 차분한-들뜬, 조화로운-조화롭지 못한 등의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품위성 요인의 구성 인자는 김윤경, 강경자(2003)의 품위성 요인, 이명희(2002)의 능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에 대해 5.7%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강한-약한, 대담한-소심한 등 2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대담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 점수가 높을 수록 온유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고, 따뜻하고, 상냥한 것으로, 귀염성 요인에서는 산뜻하고, 밝아보이고, 어려보이고, 귀여워보이는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매력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날씬해보이고, 매력있으며 키가 커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품위있으며 차분하고, 조화로운 것으로, 대담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1.5%이며 이 중 온유성과 귀염성 요인이 공통변량의 54%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을 단서로 하여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

〈표 3〉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²)
요인 1. 온유성						
부드러운-딱딱한	.781	.210	.193	-.035	-.058	.697
온화한-신경질적인	.771	.197	-.136	.174	-.018	.682
배려깊은-독선적인	.757	.201	-.072	.063	-.047	.625
따뜻한-차가운	.746	.098	-.061	-.113	.051	.585
유순한-고집스러운	.718	.029	.273	.045	-.184	.627
상냥한-통명스러운	.670	.273	.260	.087	-.047	.601
여유로운-조급한	.659	-.025	-.154	.257	.058	.528
요인 2. 귀염성						
산뜻한-칙칙한	.226	.763	.171	.194	.016	.701
밝아보이는-어두워보이는	.355	.746	.099	.147	.113	.727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120	.724	.127	-.040	-.036	.558
시원스러운-답답한	.102	.711	.268	.189	.155	.648
가벼운-무거운	.025	.706	.327	.179	-.179	.670
귀여운-성숙한	.165	.644	-.083	-.158	-.036	.475
화려한-수수한	.022	.541	.333	-.060	.280	.485
요인 3. 매력성						
보기좋은-보기싫은	.022	.179	.770	.338	-.060	.743
날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	-.240	.249	.688	.378	-.138	.755
매력있는-매력없는	.171	.396	.682	.229	.028	.705
키가커보이는-키가작아보이는	-.019	-.006	.640	.265	.254	.544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140	.379	.625	.020	.236	.609
요인 4. 품위성						
품위있는-품위없는	.121	.110	.189	.761	.016	.642
차분한-들뜬	.109	-.218	.129	.646	-.120	.509
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219	.208	.257	.643	.067	.575
부티나는-빈티나는	.167	.277	.161	.570	.321	.558
이성적인-감성적인	-.336	.008	.217	.532	.150	.465
요인 5. 대담성						
강한-약한	-.223	-.188	-.044	.155	.743	.663
대담한-소심한	.021	.320	.249	-.026	.668	.611
고유치	4.336	4.297	3.168	2.705	1.484	15.990
전체 변량의 %	16.677	16.525	12.185	10.405	5.706	61.498
공통 변량의 %	27.117	26.873	19.812	16.917	9.281	100.00

〈표 4〉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F값	F값	F값	F값	F값
주효과	톤조합(A)	6.052**	15.778**	3.466**	1.596	2.221*
	체형(B)	15.891**	11.172**	111.123**	15.433**	8.262**
상호작용 효과	A×B	6.052	1.886	1.273	1.263	.592

*p<.05 **p<.01

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효과는 변인이 무채색 톤조합인 경우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대담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귀염성 차원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여기서 매력성 차원의 경우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의 스커트차림에서는 톤조합이 매

력성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차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커트차림보다 팬츠차림일 때 무채색 톤 조합에 따라 매력성 인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이 체형일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매력성 차원에서는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체형과 의복의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형별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차이

착용자가 표준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차이를 <표 5>에서 보면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등 명도가 높은 밝은 톤으로 조합된 경우는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주었으나 미디움/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미디움, 다크/다크 등 명도가 낮은 어두운 톤으로 조합된 경우는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상·하의가 같은 톤인 미디움/미디움, 다크/다크의 경우 이러한 인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조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톤이 미디움/다크일 때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를 제외한 모든 톤조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라이트/다크일 때 즉 상의가 흰색, 하의가 검정일 때 가장 품위있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차이를 <표 6>에서 보면 온유성, 귀염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미디움을 제외한 모든 톤조합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다크/라이트의 조합에서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매우 딱딱하고 독선적이며 신경질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그 외 나머지 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명도가 높은 라이트/라이트로 톤이 조합된 경우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의 스커트차림과 마찬가지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상·하의가 모두 흰색인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일 때 가장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하가 동일한 톤으로 조합된 미디움/미디움, 다크/다크의 경우는 의복유형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즉 키가 작고 마

<표 5> 표준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40	.30	-.23	.20	-.30	-.28	.08	-.15	-.75	1.74
귀염성	1.13	.39	-.12	.37	-.91	-.20	-.05	-.24	-.78	6.36**
Duncan	a	b	bc	b	d	bcd	bc	bcd	cd	
매력성	.22	.17	.72	.40	.87	.25	.16	1.12	.56	2.67*
Duncan	bc	c	abc	bc	ab	bc	c	a	abc	
품위성	-.13	.12	.32	.03	.33	.15	1..14	-.24	-.41	2.66*
Duncan	b	b	b	b	b	b	a	b	b	
대담성	.48	-.07	.49	.01	.48	-.38	-.09	-.02	.45	1.43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6>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28	-.05	-1.12	.38	-.61	-.73	-.63	-.30	-.71	3.18*
Duncan	ab	ab	c	a	bc	bc	bc	ab	bc	
귀염성	1.36	.19	.80	.34	.24	-.01	.89	-.17	.62	2.10*
Duncan	a	b	ab	ab	b	b	ab	b	ab	
매력성	-.14	.53	-.21	.52	.22	.42	.70	.28	.32	1.30
품위성	.27	.71	.03	.37	.28	.03	.39	.30	-.05	.53
대담성	-.36	-.30	-.50	-.64	.08	-.52	-.30	-.43	.39	.88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른 체형은 톤이 미디움/미디움, 다크/다크로 조합된 경우 스커트차림일 때는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인상을 주었으나 팬츠차림일 때는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주었다.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매력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다크/라이트의 조합은 매력없는 것으로, 그 외 나머지 톤조합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품위성과 대담성 차원에서는 톤조합에 따라 두 인상차원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품위성차원에서는 다크/다크의 조합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작고 마른체형은 상·하의가 모두 검정색인 팬츠차림인 경우 매우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대담성 차원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가장 대담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착용자의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차이를 <표 7>에서 보면 온유성과 귀염성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다크/라이트, 다크/미디움, 다크/다크로 톤이 조합된 경우 딱딱하고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얼굴 가까운 곳 즉 상의에 명도가

낮은 검정색이 조합될 경우 온유성 인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라이트/다크 등 명도가 높은 톤으로 조합된 경우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반면 명도가 낮은 다크/다크나 미디움/다크, 다크/미디움 등으로 조합된 경우는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것으로 지각되어 명도가 높은 밝은 톤들의 조합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귀염성 인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력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 조합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톤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매력성 차원에서는 의복의 상하 톤조합보다 착용자의 체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때,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매력성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착용자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 조합별 인상 차이를 <표 8>에서 보면 귀염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명도가 낮은 톤으로 조합된 미디움

<표 7>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 차이

톤조합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	F
온유성	.82	.26	-.21	.57	.26	-.04	.36	.66	-.60	3.04*
Duncan	a	abc	cd	abc	abc	bcd	abc	ab	d	
귀염성	.32	.25	-.32	.16	.44	-.70	.24	-.57	-.51	4.24**
Duncan	ab	ab	bc	ab	a	c	ab	c	c	
매력성	-1.21	-.96	-1.22	-.82	-.79	-.51	-.71	-.84	-.77	1.26
품위성	.10	-.51	.25	-.32	-.91	.25	-.51	-.27	-.86	1.94
대담성	.53	-.02	.37	.12	.19	-.08	.25	-.12	.42	1.00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8>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 차이

톤조합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	F
온유성	-.81	-.03	-.87	-.21	-.32	-.55	.06	-.68	-.56	1.69
귀염성	.75	.82	.12	.30	-.44	-.34	.29	-.31	-.52	4.24**
Duncan	a	a	abc	ab	cd	cd	ab	cd	d	
매력성	.34	.93	1.14	.93	.99	.91	1.43	.91	1.13	3.00**
Duncan	b	a	a	a	a	a	a	a	a	
품위성	.56	.68	.33	.70	.24	.74	.12	.50	.30	1.02
대담성	.67	.34	.09	.24	.14	.23	.20	.22	.70	.65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는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명도가 높은 톤으로 조합된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라이트/다크 등은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조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톤 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특히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의 톤조합이 매력적인 인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력성 차원에서는 의복의 상하 톤조합보다 착용자의 체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매력성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온유성과 품위성, 대담성 차원을 살펴보면 온유성 차원은 라이트/다크를 제외한 모든 톤조합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신경질적이고 딱딱한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품위성과 대담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조합이 품위있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온유성과 품위성, 대담성 인상은 톤조합보다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 온유성 인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품위성과 대담성 인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가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 조합별 인상차이를 <표 9>에서 보면 귀염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명도가 높은 밝은 톤이 조합된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 등은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 나머지 톤 조합 특히 미디움/미디움과 다크/미디움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온유성과 대담성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톤조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온화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었으나 매력성과 품위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조합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이 없고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경우 온유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인상에 무채색 톤조합보다 체형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 온유성과 대담성 인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력성과 품위성 인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5가지 체형 중 표준 체형이 인상형성시 무채색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무채색 톤조합보다 체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채색 톤조합별 체형간의 인상 차이

톤 조합이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중량감에 따라 뚱뚱한 체형과 표준 체형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에서 이러한 인상이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마른 체형은 딱딱하고 신경질적이며 독선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경우 이러한 인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모든 체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산뜻하고 밝아보이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여기에는 산뜻하고 밝아보이는 흰색 고유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과 표준체형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반해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중량감에 상관없이 키가 작은 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체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품위있는 것으로, 표준체형과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9>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간의 인상 차이

요인 \ 톤조합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	F
온유성	.18	.50	.17	.91	-.21	.43	.24	.12	.11	1.20
귀염성	.50	.30	.33	-.37	-1.16	-.67	.45	-1.11	-.96	11.16**
Duncan	a	a	a	b	c	bc	a	c	bc	
매력성	-1.03	-.75	-.45	-.49	-.69	-.47	-.37	-.16	-.70	
품위성	-.87	-.08	-.25	-.26	-.31	-.40	-.39	-.47	-.55	.59
대담성	.55	.70	.72	-.08	.19	.52	.52	.31	.55	.67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0〉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40	-.28	.82	-.81	.18	3.78*
Duncan		ab	bc	a	c	ab	
귀염성		1.13	1.36	.32	.75	.50	3.04*
Duncan		ab	a	c	abc	bc	
매력성		.22	-.14	-1.21	.34	-1.03	7.97**
Duncan		a	a	b	a	b	
품위성		-.13	.27	.10	.56	-.87	2.63*
Duncan		ab	a	ab	a	b	
대담성		.48	-.36	.53	.67	.55	1.43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톤 조합이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1>에서 보면 매력성과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표준체형과 마른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중량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어 스커트차림일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 매우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2>에서 보면 온유성, 매력성,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 외 체형 특히 키가 작고 마른체형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가장 딱딱하고 독선적이며 신경질적인 인상을 주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키가 작고 마른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표준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체

〈표 11〉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30	-.05	.26	-.03	.50	.70
귀염성		.39	.19	.25	.82	.30	
매력성		.17	.53	-.96	.93	-.75	14.03**
Duncan		b	ab	c	a	c	
품위성		.12	.71	-.51	.68	-.08	3.73**
Duncan		ab	a	b	a	ab	
대담성		-.07	-.30	-.02	.34	.70	1.56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2〉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 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23	-1.12	-.21	-.87	.17	4.18**
Duncan		ab	c	ab	bc	a	
귀염성		-.12	.80	-.32	.12	.33	2.46
매력성		.72	-.21	-1.22	1.14	-.45	18.19**
Duncan		a	a	c	a	b	
품위성		.32	.03	.25	.33	-.25	.63
대담성		.49	-.50	.37	.09	.72	3.10*
Duncan		a	b	a	ab	a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형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에서 강하게 나타나 가장 대담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3>에서 보면 온유성,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마른체형은 딱딱하고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표준체형과 마른 체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과 표준 체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품위있는 것으로,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4>에서 보면 귀염성과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중량감에 상관없이 키가 작은 체형은 귀여운 인상을 주었으나 표준 체형과 키가 큰 체형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매우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과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고 품위없는 것으로, 표준 체형과 마른체형은 매력적이며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5>에서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만이 부드럽고 배려깊고 온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 체형과 표준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체형이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의 스커트차림일 때와 공통된 반응으로 매력성 차원에는 키보다는 중량감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톤조합이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6>에서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품위성 차

<표 13>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 미디움(흰색/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20	.38	.57	-.21	.91	3.48*
Duncan	bc	abc	ab	c	a	
귀염성	.37	.34	.16	.30	-.37	1.19
매력성	.40	.52	-.82	.93	-.49	12.04**
Duncan	a	a	b	a	b	
품위성	.03	.37	-.32	.70	-.26	2.93*
Duncan	ab	ab	b	a	b	
대담성	.01	-.64	.12	.24	-.08	1.98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4>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 미디움(회색/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30	-.61	.26	-.32	-.21	1.25
귀염성	-.91	.24	.44	-.44	-1.16	10.39**
Duncan	bc	a	a	b	c	
매력성	.87	.22	-.79	.99	-.69	14.01**
Duncan	a	b	c	a	c	
품위성	.33	.28	-.91	.24	-.31	3.26*
Duncan	a	a	b	a	ab	
대담성	.48	.08	.19	.14	.19	.22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5〉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 미디움(검정/회색)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28	-.73	-.04	-.55	.43	3.00*
Duncan		ab	b	ab	b	a	
귀염성		-.20	-.01	-.70	-.34	-.67	1.12
매력성		.25	.42	-.51	.91	-.47	8.33**
Duncan		b	ab	c	a	c	
품위성		.15	.03	.25	.74	-.40	1.90
대담성		-.38	-.52	-.08	.23	.52	2.09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딱딱하고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톤조합이 라이트/다크인 경우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의복유형이 스킨차립인 경우와 공통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톤 조합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매력성 인상에는 무채색 톤조합이나 의복유형보다 착용자의 체

형 즉 중량감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톤 조합이 라이트/다크인 경우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표준체형은 품위있는 것으로, 마른 체형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미디움/다크(회색/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를 <표 17>에서 보면 온유성,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과 표준체

〈표 16〉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08	-.63	.36	.06	.24	2.87*
Duncan		a	b	a	a	a	
귀염성		-.05	.89	.24	.29	.45	2.14
매력성		.16	.70	-.71	1.43	-.37	18.58**
Duncan		bc	b	d	a	cd	
품위성		1.14	.39	-.51	.12	-.39	5.96**
Duncan		a	ab	c	bc	c	
대담성		-.09	-.30	.25	.20	.52	1.29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7〉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다크(회색/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15	-.30	.66	-.68	.12	4.87**
Duncan		bc	bc	a	c	ab	
귀염성		-.24	-.17	-.57	-.31	-1.11	1.80
매력성		1.12	.28	-.84	.91	-.16	16.40**
Duncan		a	b	c	a	b	
품위성		-.24	.30	-.27	.50	-.47	3.01*
Duncan		bc	ab	bc	a	c	
대담성		.02	-.43	-.12	.22	.31	2.37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형은 딱딱한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뚱뚱한 체형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배려깊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온유한 인상을 주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은 매력 있는 것으로,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이 긍정적으로, 뚱뚱한 체형과 표준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미디움/다크로 톤이 조합된 경우 마른 체형,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매우 품위있는 인상을 주는데 반해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품위없는 인상을 주었고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품위없는 인상을 주었다.

톤조합이 다크/다크(검정/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를 <표 18>에서 보면 귀염성과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만이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중량감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만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나머지 체형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매우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인상형성 시 무채색 톤조합들 중 명도가 가장 높은 톤으로 조합된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에서 체형간에 인상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력성 차원의 경우 모든 톤 조합에서 체형 간에 인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체형의 분류 요소 중 중량감이 매력성 인상차원에 부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여 모든 톤조합에서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반면에 마른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

다. 이는 전보(팽숙경, 강경자, 2004)의 스커트차림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매력성 인상차원에서는 의복유형이나 톤조합보다 체형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팬츠차림을 중심으로 체형과 무채색 톤 조합 변화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6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온유성 요인, 귀염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대담성 요인 등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2. 체형과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알아본 결과

-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과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이 톤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경향은 키보다는 중량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이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염성 차원에서는 5가지 체형 모두 톤 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등의 명도가 높은 톤의 조합이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것으로, 다크/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미디움 등의 명도가 낮은 톤의 조합은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 매력성 차원에서는 인상형성 시 톤조합보다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키에 상관없이 뚱

<표 18>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다크(검정/검정)인 경우 체형간의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75	-.71	-.60	-.56	.11	1.63
귀염성		-.78	.62	-.51	-.52	-.96	7.74**
Duncan		b	a	b	b	b	
매력성		.56	.32	-.77	1.13	-.70	13.78**
Duncan		ab	b	c	a	c	
품위성		-.41	-.05	-.86	.30	-.55	2.67*
Duncan		ab	ab	b	a	ab	
대담성		.45	.39	.42	.70	.55	.20

* : p < .05 ** : p < .01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뚱한 체형은 모든 톤조합에서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 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체형의 분류요소 중 키보다 중량감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표준 체형은 마른체형이나 뚱뚱한 체형에 비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중간적인 중량감을 가지고 있어 체형보다는 톤 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위성 차원에서는 표준체형만이 톤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나머지 체형은 톤조합보다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뚱뚱한 체형은 대체로 톤조합에 상관없이 품위없는 것으로 마른 체형은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품위성 인상차원에는 체형의 분류요소 중 중량감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담성 차원에서는 5가지 체형 모두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체형의 영향을 받아 키가 작고 마를수록 대담성 인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5가지 체형 모두 다크/다크의 조합이 가장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팬츠차림과 전보의 스커트차림을 종합하여 체형별 각 인상차원에 가장 효과적인 톤조합을 살펴보면

· 표준체형의 경우 온유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때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가, 스커트차림일 때는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이 가장 효과적이고, 귀염성 인상에는 팬츠차림과 스커트차림 모두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의 경우 미디움/다크(회색/검정)가, 스커트차림의 경우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가 가장 효과적이고, 품위성 인상에는 팬츠차림과 스커트차림 모두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때는 다크/라이트(검정/흰색)가, 스커트차림일 때는 다크/다크(검정/검정)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을 살펴보면 온유성 인상에는 팬츠와 스커트차림 모두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이, 귀염성 인상에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온유성과 귀염성 인상은 의복유형 간에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매력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모든 톤조합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때는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가, 스커트차림일 때는 동일한 조합이나 상하의 위치가 바뀐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의 조합이 가장 품위있는 인상을 주었다. 대담성 인상에는 스커트차림일 때는 모든 톤조합이 부정

적인 효과를 주고 팬츠차림일 때는 다크/다크(검정/검정),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의 조합만이 대담성 인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을 살펴보면 온유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가,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귀염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이, 스커트차림일 경우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력성 인상에는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톤조합에서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의복단서 보다는 체형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가,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의복유형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살펴보면 온유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 라이트/다크(흰색/검정)가,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귀염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경우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이,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의복유형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매력성 인상에는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톤조합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의복단서보다는 체형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 인상에는 스커트차림일 경우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와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팬츠차림의 경우는 모든 톤조합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성 인상에는 팬츠차림과 스커트차림 모두 다크/다크(검정/검정)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을 살펴보면 온유성 인상에는 팬츠 차림일 경우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이, 스커트차림일 경우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귀염성 인상에는 팬츠차림일 때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가 가장 효과적이거나 스커트차림일 때는 라이트/다크(흰색/검정)만이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력성 인상에는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톤조합이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의복단서보다는 체형의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 인상 역시 미디움/다크(회색/검정)로 조합된 스커트 차림일 때만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대부분의 톤조합이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품위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성 인상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대담성

인상에는 미디어/미디어(회색/회색)으로 조합된 스커트 차림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톤조합이 대담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단서보다는 체형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츠차림일 때는 다크/라이트(검정/흰색)가, 스커트차림일 때는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의 조합이 대담성 인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 의복유형은 여성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특히 착용자의 체형은 각 인상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지배적인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착용자의 의복도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이 보다 착용자의 체형이 근본적으로 매력성 인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상형성에 사용되는 첫 번째 단서는 개인의 신체적 외모이며 특히 체형이나 얼굴 등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이론(강혜원, 2000)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인상차원에서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 보다는 중량감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자가 의복 착용자를 접했을 때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 보다는 중량감 즉 무게감이 먼저 시선을 끄는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의복단서도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착용자는 먼저 자신의 체형을 고려한 후 적절한 의복유형과 무채색 배색을 상하 조합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체형과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가 되고 의류산업체의 체형별 차별화된 상품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고 다양한 의복 단서들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의복을 착용한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모델의 얼굴 표정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착용자의 체형별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채색의 톤조합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색상과 의복유형, 지각자 연령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착용자의 체형, 무채색 톤조합, 인상형성

참 고 문 헌

-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김미영 (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재숙, 김희숙 (1992)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371-377.
- 김재숙, 송경자 (2002)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29-37.
-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 (2000) 의복색채에 의한 시각적 평가.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5.
-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111-122.
- 박혜선, 이은영 (1984)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의 구성요인 도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9, 103-107.
-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오은주 (1998) 자켓과 스커트의 비울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2)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미숙, 김재숙 (1995)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제1보)-초등 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1017-1026.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교문사.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생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조공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팽숙경, 강경자 (2004)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평가(제1보). *한국생활과학회지*, 12(6), 1007-1021.
-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1991) 한국표준색표집.
- 홍병숙, 정미경 (1993) 여성수트의 이미지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Burger, HI (1981) *Dimens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How Others Se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Damhorst, M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Douty, HI (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5(3), 197-202.
- Francois, SK, Evans, PK (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64(2), 383-390.
- Osgood, Charles E, Suci, George J, Tannenbaum, Percy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Chicago: Uniaersity of Illinois Press.
- Pedersen, Markee (1994) Gender Differences in Chracteristics Reported to be Important features of Phys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9, 1539-1544.

(2006. 04. 11 접수; 2006. 06. 26 채택)